

# 꼭꼭 숨은 표 5~8%가 당락 가른다

■ 안갯속 광주 서구를 보선 승패 가를 변수

지지 후보 안팎인 부동산 향배 주목

투표율 따라 후보들 유불리 계산 복잡

29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투표율과 숨은 표의 향배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재보선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쏠릴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 얼마나? = 그동안 재보선 투표율이 평균 30%대 초반이었던 머무르는 등 전국 동시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지난해 치러진 2번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각각 평균 32.9%, 33.4%로 30%대 초반을 뛰어넘지 못했다. 특히 지

난해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울의 경우 평균 투표율을 보다 10.6% 포인트 낮은 22.3%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30%대 중반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각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다 사전 투표율이 9.29%로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4곳 중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30%대 중반의 투표율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구를 유권자가 12만3074명인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30%대 중반이 될 경우 4만3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중 40% 가량인 1만7200여표를 얻으면 당

선 안정권에 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을 경우, 각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반면,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숨은 표' 및 부동산 향배 =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표심을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은 '숨은 표'의 향배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 답변하지 않는 부동산 가운데 지지 후보가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표심을 '숨은 표'로 정의하며, 선거에 반영되는 숨은 표 효과를 대략 5~8%로 추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1위와 2위 후보 간에 8%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있다면 숨은 표로 인

해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숨은 표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서구를 보선도 상당한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의 경우 '일당 독점' 구도인 지역 정치구도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는 반면, 박근혜 정부 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도 강해 여론조사에 적극 응대하기 보다는 부동산으로 이탈해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도 선거 막판까지 '숨은 표' 및 부동산을 자신의 지지 표로 이끌어내기 위해 유세차량을 이용한 유세보다는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김한길, 경고등 켜진 광주 열선도 않는 까닭은

공동대표 시절 공천배제 등

천정배에 대한 '부채의식' 탓?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4·29 재보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4곳 가운데 유독 광주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다른 비노 진영 수장들이 재보선 지원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던 이철호 문 대표 측근인 정태호 후보가 나온 서울 관악을을 시작으로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가장 먼저 발걸음 나섰고,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관악을과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을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광주 서울에는 단 한차례도 발걸음 하지 않았고, 선거 당일까지 별도의 방문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도 지난 12일 성남 중원 정환석 후보의 개소식 참석을 시작으로 수도권 3곳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지만 광주를 찾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광주행이 걸려올 수밖에 없는 데는 천 전 의원과 얽힌 이들의 복잡한 인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공동대표로 당을 이끌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천 전 의원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때 이 곳 출마를 희망하던 천 전 의원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 '권은희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의 아니게 천 전 의원에게 상처를 준 셈이 됐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천 전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측근인 윤장현 광주시장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 뛰었던 점 때문에 '인간적 미안함'이 크다는 후문이다.

당 대표 시절 천 전 의원에게 굶은 일을 시켰지만, 공천에서 배제했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광주 지역내 안 전 대표 지지그룹 일부가 이번 선거에서 천 전 의원을 돕고 있는 점도 광주 지원과 관련, 윤선의 폭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대표도 천 전 의원과 15대 정치임문 동기로, 7·30 재보선 파동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천 전 의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야 '텃밭사수' 막판 표심잡기 총력

김무성 강화군·이정현 광주 서구에서 후보 지원

새정치 소속 의원들 전원 선거지역 '뚜벅이 유세'

여야가 4·29 재보선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텃밭 사수'를 위해 막판 표심잡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 전날 1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조영택 후보와 광주 서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표는 곧바로 지도부와 함께 조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

회에서 야권분열은 박근혜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제1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광주시민의 질책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로 이동해 '친박 비리계이트 진상규명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인천서·강화을 지역을 방문해 선거유세를 벌였다. 이어 서울 관악을로 이동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날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투입돼 선거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48시간 뚜벅이 유세'

를 벌이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 판세가 4대 0 전승이 될 수도 있지만, 0대 4가 될 수도 있는 '초박빙'이라고 판단.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대어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으며 야권 지지표 결집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지지세가 강한 강화군을 지난 24일에 이어 사흘만에 또다시 찾아 이 지역 출신 안덕수 전 의원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안상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젊은층이 많아 야당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돼 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지역을 방문, 지역 맞춤형 공약을 홍보했다. 김 대표의 인천 방문은 이번이 11번째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선거일까지 최고위원은 유세차량을 이용해 '나홀로' 유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승 후보 지지를 읍소할 예정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도 선거 이틀 전인 27일 전직 국회의원들과 복지단체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며 지지결집에 힘을 쏟았다. 천 후보 측은 이날 김중배, 신중식, 유원일, 조재환, 채일병, 홍기훈 등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도 선거일 하루 전 자정까지 선거구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도 선거일 마지막인 28일 각 선거구를 모두 돌며 유세를 펼치는 한편 오후 6시부터는 천호선 대표와 정진후·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금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한 뒤 밤 12시까지 골목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

#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후보등록 시작

김동철·이종걸·설훈·조정식·최재성 의원 등 출마 유력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부터 우윤근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을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후보 등록에 들어갔다. 하지만, 4·29 재보선도 목전에 두고 있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는 재보선 직후 접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을 한 뒤 내달 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재적(130명) 대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뽑는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보는 4선의 이종걸 의원을 비롯, 3선의 김동철(사진)·설훈·조정식·최재성 의원(가나다순) 등 5명이다. 출마가 유력했던 박기춘 의원은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엔 조정식 의원만 후보 등록을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 갑 김동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번 원내대표 경선 판세를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는 4·29 재보선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분위기가 문 대표 체제 강화나 아니면 견제론 확산이나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계파 간 대립전 양상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합종연횡을 통한 일부 후보 간 교섭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친노 직계 후보가 없어서 친노 의원들의 지지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은 재보선 때까지는 '일대일' 접촉 또는 재보선 지역 방문 등을 통한 '조용한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도 재보선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